

한국 과학소설의 환상성 연구

– 오영민의 『화성호는 어디에』와 『마의 별 카리스토』를
중심으로

김 지 영*

차 례

- | | |
|---|-------------------------------|
| 1. 서론 | 3. 한국 과학소설의 ‘합리적 환상’의 세계 |
| 2. 과학소설의 환상성 | 1) 관심분야 형상화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확보 |
| 1) ‘상상’, ‘공상’, 그리고 ‘환상’ | 2) 과학 이론 제시를 통한 설득력 확보 |
| 2) 과학소설의 ‘합리적 환상’: 과학 소설이 그려내는 합리적 환상의 세계 | 3) 묘사를 통한 사실성 확보 |
| |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과학소설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시고로서 1975년 해동출판사에서 출판된 『한국과학소설전집』의 수록 작품 중에서 오영민의 『화성호는 어디에』와 『마의 별 카리스토』를 대상 텍스트로 삼고 있다. 오영민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

* 부산대학교 강사

는 ‘비현실적이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과학소설의 특징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텍스트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오영민의 두 소설은 과학소설 중에서도 우주 활극이라는 하위 장르에 속한다. 우주활극은 과학 지식의 토대 하에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이 결합되어 창조된 우주의 한 공간에서 인간과 외계종족이 조우하여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로서 비현실과 초자연, 논리와 설득력의 요소를 두루 갖춘 장르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과학소설이 창조해 낸 가상의 세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용어를 찾기 위해 ‘상상’, ‘공상’ 그리고 ‘환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상’은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원동력으로서 작가의 창조 행위를 일컫는 보편적인 용어이다. ‘공상’은 과학소설의 작가나 독자가 창작과 독서의 과정에서 진행하는 정신행위와 관련되는 용어로서 ‘허무맹랑하고 허황한’의 의미를 전제한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과학소설의 수식어였음에도 과학소설을 가치 폄하하는 수식어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허무맹랑하고 허황한’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상’을 다시 과학소설을 수식하는 용어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고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과학소설의 ‘비현실적이지만 실현가능성 있는’ 성격을 의미하는 용어로서는 ‘공상’보다는 ‘환상’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공상’은 창작 및 독서 과정에 수반되는 정신 ‘행위’에 대한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비현실적이지만 실현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환상’은 과학소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 장르의 특징이기 때문에 과학소설의 ‘환상’만이 갖는 변별점을 추출해내고자 시도했고 그 결과 과학소설이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문학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합리적 환상성’으로 명명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 과학소설의 ‘합리적 환상성’이 실제 작품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오영민의 『화성호는 어디에』와 『마의 별 카리스토』를 분석하였다. 우선 당대 사회의 현실과 사회적 소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환상을 설정한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작품의 주요 사건은 공통적으로 은하계 탐사를 비롯한 우주 개발인데 당시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전사회적으로 뜨거웠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독자들이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오영민은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사건을 제시할 때도 과학의 법칙과 이론들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때 실증과학이론 뿐만 아니라 유사과학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들 과학이론들은 사실성의 여부를 떠나 작품의 그럴듯함, 즉 합리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오영민은 작품에서 서사기법으로 ‘묘사’를 사용함으로써 가상의 공간이나 상황, 인물에 대해 사실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미지의 행성과 실존하지 않는 외계생명체에 대한 생생하고 치밀한 묘사는 설득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학소설은 허황하고 유치한 이야기를 그럴 듯하게 꾸며내어 독자들을 현혹시키며 현실의 모순과 한계를 담아내기보다는 저급한 재미만을 추구하는 장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과학소설이 꾸며내는 허황한 이야기와 그를 통해 전해지는 재미 역시 문학의 중대한 본질이다.

본고에서 제안한 과학소설의 ‘비현실적면서도 실현가능성 있는’ 성격, 즉 ‘합리적 환상성’에 대해 분석이 과학소설에 대한 편견없는 이해와 평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과학소설, 우주활극, 한국과학소설전집, 오영민, 상상, 공상, 환상

1. 서론

미국 대중과학소설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연구가인 휴고 건즈백은 과학소설을 ‘과학을 다룬 문학’이거나 ‘과학기술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 소설’이라고 정의한다.¹⁾ 과학소설을 다른 장르와 변별짓는 요소인 과학기술은 작품이 창작되는 당시의 실증과학을 포함해서 개별 작가가 나름의 논리와 근거로 구성한 가상의 과학과 기술까지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소설에서 그려지는 세계는 치밀한 과학이론을 전제로 한 극 사실과 작가의 파격적인 상상에 의한 가상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과학소설 속에 과학기술의 이론이나 원리가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서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과학소설의 대부분은 개별 작가에 의해 창조된 비현실의 가상 세계와 그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이 차지한다. 사실 비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현실적 개연성과 무관한 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비단 과학소설만은 아니다. 고전문학의 많은 작품들과 판타지소설, 환상소설, 추리소설, 공포소설에 이르기까지 현실 반영을 전제로 하는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문학작품이 그려내는 세계는 비현실이고 그 속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은 현실적 개연성이 희박하다. 비현실을 전제로 한다는 분명한 유사점이 있지만 이들 장르들을 한 범주로 묶지 않는 것은 각 장르별로 독자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는 비현실을 특징으로 하는 여러 장르들과 변별되는 과학소설만의 특징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집필되었다.

과학소설의 비현실적인 세계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필자가 우선적으로 시도한 것은 한국과학소설 작품 중에서 적합한 텍스트를 찾는 작업이었다. 우리나라의 과학소설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하면 과학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규명하는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불모지로 남아 있는 한국 과학소설의 특징 연구 작업도 함께 수행할 수 있기에 그 의미가 더

1) 고장원, 『SF의 법칙』, 서울:살림, 2008, 32쪽.

욱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학소설이 대중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나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과학소설은 그 역사가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장르소설들에 비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한 경향이 있다. 소수의 열성적인 독자층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과학소설은 아동들을 위한 장르, 흥미와 오락을 추구하는 장르로 인식해 왔다. 그래서 1990년대 이전의 한국 작가들의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 과학소설의 상황이 열악한 것은 창작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다.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서도 한국 과학소설은 그 역사나 중요성에 비해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그나마의 연구도 특정한 한 두 작품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른 장르소설과 비교해서 역사가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학소설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인색한 것은 작품의 숫자가 부족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지적받아 왔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오영민의 작품들은 한국과학소설 연구를 한 걸음 진전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원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본고에서는 서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과학소설이 형상화하고 있는 세계와 사건들이 갖는 특징을 규명하는 한편 한국과학소설사 기술의 기초 작업으로서 1975년 해동출판사에서 출판한 『한국과학소설전집』에 수록된 작품들 중 오영민의 『화성호는 어디에』와 『마의 별 카리스토』를 분석하고자 한다.³⁾

2) 오영민은 196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며 등단하였고 아동문학작가로서 작품을 활동하면서 『학원』, 『농원』, 『주부생활』 편집장, 학원출판사 주관을 역임했다. 오영민은 과학전문지인 『학생과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과학 소설가들이 1969년에 결성한 'SF작가클럽'의 회원으로 『한국과학소설전집』에 장편소설 『화성호는 어디에』와 중편소설 『마의 별 카리스토』 외에도 중편 분량의 『사건 2732』가 수록되어 있다.

3) 오영민, 『화성호는 어디에』, 서울:해동출판사, 1975.
오영민, 『마의 별 카리스토』, 서울:해동출판사, 1975.

오영민의 작품들 중에서 『화성호는 어디에』와 『마의 별 카리스트』를 대상 텍스트로 선택한 이유는 이들 작품이 과학소설의 비현실적인 세계의 특징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텍스트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작품분석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화성호는 어디에』와 『마의 별 카리스트』는 과학소설의 다양한 하위 장르 중에서 우주 활극에 속한다. 우주 활극은 우주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펼쳐지는 모험이야기로 간단히 정의내릴 수 있다.⁴⁾ 이때 배경이 되는 우주는 과학 지식의 토대 하에 작가가 상상해 낸 공간이거나 실재하는 행성일지라도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공간이 대부분이다.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창조된 우주의 한 공간에서 인간과 외계 종족이 조우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우주활극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세계야말로 비현실적인 세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오영민의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과학소설의 비현실적인 성격을 어떻게 명명할 지부터 결정하고자 한다. 비현실이 과학소설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소설만의 비현실이 갖는 특징을 규정할 수 있는 용어 결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이후의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과학소설의 환상성

1) '상상', '공상', 그리고 '환상'

과학소설은 현실의 모순과 한계를 비판하기 위해 현실을 모사하고 반영하는 사실주의 소설과 달리 과학적 토대에 기발한 상상력을 더해 현존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그려내는 소설이다. 과학소설은 궁극적으로

4) 김지영, 『1960-70년대 청소년 과학소설 장르연구』, 『동남어문논집』 제35집, 동남어문학회, 2013, 128~130쪽.

지향하는 바는 사실주의 소설과 다르지 않지만 초자연과 비현실의 가상 세계를 그려낸다는 점에서 반사실주의 계열로 분류되어 왔다. 과학소설을 사실주의 소설과 변별시키는 특징은 현실 재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비현실의 가상 세계를 그려내는 다수의 반사실주의 계열의 소설들과 변별되는 특징은 과학소설이 과학적 토대 위에서 비현실의 가상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장에서는 과학소설이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토대 위에서 기발한 상상력으로 형상화한 가상의 세상’을 어떻게 이름 붙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고자 한다.

‘상상’, ‘공상’, 그리고 ‘환상’이라는 세 가지 용어가 과학소설의 특징을 설명할 때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세 용어의 개념과 특징을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과학소설의 특징 규명에 적합한 용어로 좁혀나가겠다.

상상은 행위이다. ‘상상’은 서사문학에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 즉 ‘허구fiction’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창작 행위 자체의 본질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창작행위 뿐만 아니라 독서행위에 있어서도 ‘상상’은 핵심적인 추동력이다. ‘상상’의 행위가 없이는 작가가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도, 독자가 그것을 읽고 ‘그려내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상은 문학작품을 둘러싼 모든 행위(창작과 해석)의 전제가 되는 본질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파악해야 한다. 즉 ‘상상’은 문학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 상상은 문학에서의 보편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행위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것은 ‘상상’에 대한 논의가 문학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도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상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살펴보면 ‘상상’의 의미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상’의 의미에 대한 기존 논의들 중에서 먼저 철학의 영역에 상상의

특징에 대해 논의한 내용으로서 우선 ‘역사는 기억, 문학은 상상, 철학은 이성’에 직결되어 있다는 말을 통해 문학이 이성보다는 상상력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한 프란시스 베이컨은 상상이란 사실의 세계에 매이지 않고 사실들을 마음대로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칸트 또한 상상력을 외계의 사물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능력으로 파악했다.⁵⁾

문학의 영역에서 상상에 대한 논의를 펼쳤던 코울리지는 상상력은 작품을 창조하는 원리로서 작가는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문학적 특질을 구현하며, 소설은 상상력을 통해 창조된 세계 혹은 상상력의 결과로 생성된 세계라고 보았다.⁶⁾ 환상문학 작가인 이탈로 칼비노는 상상이란 잠재적이고 가능태적인 것, 즉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을 것이지만, 존재할 수 있었고 존재할 수 있을 것의 시행목록이라고 정의했다.⁷⁾

이상의 정의들을 통해 볼 때, ‘상상’은 세상을 창조하는 행위능력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작품 속에 창조된 세상이 현실 세계와 유사한지 여부는 상관없기에 과학소설을 포함한 모든 문학 창작의 전제가 되는 보편적인 용어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공상 또한 상태보다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려보는 행위⁸⁾를 의미하는 ‘공상’은 앞서 제시한 ‘상상’행위 중에서도 특히 허황하고 허무맹랑한 것에 대한 상상이다.

‘공상’은 과학소설의 대표적인 수식어로 사용되어 왔지만, 이 용어가 가치 폄하의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최근에는 ‘공상과학소설’이라는 용어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비판의 이유는 바로 ‘공상’이 허황함과 허무맹랑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근대 이래로 실증

5)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민음사, 2009, 126~128쪽.

6) 한용환, 『소설학 사전』, 서울:문예출판사, 1999, 222~224쪽.

7) 최기숙, 『환상』,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18쪽.

8) 네이버 국어사전

되지 못하는 허황하고 허무맹랑한 것은 지양되어야 할 덕목이었기에 ‘공상’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박상준은 우리나라에서 ‘공상’과학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계기를 일본의 영향으로 설명한다. 196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SF 잡지 『SF 매거진』이 미국 잡지 『Fantasy and Science Fiction』를 ‘공상과학소설’로 번역했고, 그 용어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소개되면서 ‘공상과학소설’이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⁹⁾ 기존 과학소설 연구가들은 박상준의 설명을 근거로 해서 ‘공상과학소설’이라는 용어 수용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즉, 애초에 ‘Fantasy and Science Fiction’은 ‘환상소설과 과학소설’로 번역되어야 하는데 ‘공상과학소설’로 잘못 번역되었고 이 용어가 제대로 된 검증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우리나라에 소개됨으로써 과학소설에 대해 뿌리 깊은 편견을 야기했다고 비판한다.

필자는 ‘공상’에 대한 비판을 비판한다. 상상의 내용을 가치평가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점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실을 전제로 한 개연성 있는 허구는 의미 있고, 현실을 전제하지 않는 허황한 허구는 의미가 없다는 식의 설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상상행위의 결과물이 현실을 전제하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학적 완성도만으로 작품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공상’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공상’은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세계를 형상화하는 과학소설의 특징을 설명하기에 매우 적절한 용어이다. 그리고 허무맹랑하고 허황된 것에 대한 ‘공상’도 분명 문학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 중심의 근대 과학적 관점에서 ‘공상’을 가치판단해서는 안 된다.

과학소설의 수식어로 ‘공상’의 부활을 주장하지만 본고에서 규명하고자하는 과학소설의 비현실적 세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는 ‘공상’이 적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공상’은 세상을 창조하는 보편적 행위를 의미하는 ‘상상’과 마찬가지로 행위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

9) 박상준, 『멋진 신세계』, 서울:현대정보문화사, 1992, 39쪽.

다. ‘공상’은 과학소설의 작가나 독자가 작품의 창작과 독서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정신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환상’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용어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환상적 fantastic/fantastique’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phantasein’에서 파생된 단어로 ‘착각을 주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다’를 의미한다. 프랑스어 ‘fantastique’는 ‘귀신들린, 공상적인,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등의 의미로 초자연적 존재가 등장하는 이야기 종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환상적’이라는 단어는 시각적 현상, 착시, 환영, 환각과 관련되며, 어원상 본질적인 모호성을 지시한다.¹⁰⁾

문학에서 ‘환상’은 현실세계의 모방과 재현을 중시하는 사실주의적 경향을 넘어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기이한 현상과 모호한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파악해야 한다. ‘환상’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환상을 특정 모티프나 주제에 의존하거나 기본 규칙이나 구성요소 혹은 구조로 간주하는 것에서부터 장르 중심의 이론적 접근 혹은 역사상의 특정 장르로 정의하는 견해, 그리고 문학의 본질적 충동으로 간주하는 데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환상에 관해 장르적 접근을 시도한 토도로프는 환상문학의 장르를 규정하는 작품 내적 준거로 독자의 망설임을 강조한다. 현실을 모사하는 사실적 문학과 달리 초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환상문학의 경우는 독서 과정에서 끊임없이 상황을 판단하고 상징을 해석하는 등 주춤거림의 과정, 다시 말해 망설임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¹¹⁾ 로즈메리 잭슨은 환상을 사실적 재현을 우선하지 않는 전복적 성격을 지닌 문학적 경향으로서 신화, 전설, 민담이나 동화, 유토피아적 알레고리, 몽상, 초현실주의 텍스트, 공상과학소설, 공포물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¹²⁾

10) 최기숙, 앞의 책, 7쪽.

11) 츠베탕 토도로프, 『환상문학 서설』, 이기우 역, 서울:한국문화사, 1996.

12) 로즈메리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서울:문학동네,

캐스린 흠은 문학의 주요 충동을 ‘모방’으로 간주하면서 ‘환상’을 분리할 수 있는 주변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기존 견해를 반박하고 환상은 그 자체로서 문학적 충동이라고 지적한다.¹³⁾ 에릭 라프킨은 환상이 현실의 기본원칙과 어긋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을 중시했다. 환상은 일차적으로 서사의 기본 규칙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기본 규칙들이 세계 인식에 대한 독자의 기존의 시선과 어긋나는 지점에서 환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¹⁴⁾ 이러한 논의들 외에도 ‘환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학자마다, 작가마다, 문학의 영역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환상’을 ‘모방’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 문학적 충동으로 파악한 캐스린 흠의 견해와 뜻을 같이 한다. ‘모방’이 현실을 재현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라면 ‘환상’은 현실을 전제하지 않는 비현실과 초현실의 세계를 표현하는 문학적 충동인 것이다.

‘상상’, ‘공상’, ‘환상’의 세 용어를 둘러싼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본고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과학소설의 ‘비현실과 초현실의 세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환상’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장에서는 과학소설이 그려내는 ‘환상’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하겠다.

2) 과학소설의 ‘합리적 환상’ : 과학소설이 그려내는 합리적 환상의 세계

‘환상’은 과학소설만의 특징은 아니다. 기발한 상상력으로 작품 속에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형성되는 ‘환상’은 고전 문학, 환상소설, 판타지 소설에서 동화에 이르기까지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을 제외한 대다수의 장르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2001.

13) 캐스린 흠, 『환상과 미메시스』, 한창엽 역, 서울:푸른나무, 2000.

14) 로버트 스콜즈·에릭 라프킨, 『SF의 이해』, 서울:평민사, 1993, 223쪽.

장에서는 다른 장르의 ‘환상’과 변별되는 과학소설만의 ‘환상’이 지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기로 하겠다.

과학소설, 그 중에서도 특히 우주활극 장르가 그려내는 세계가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세계는 매우 그럴 듯한 설명, 과학적 설명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학소설의 환상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실증 과학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상의 세계를 다루는 경우에 있어서도 과학소설은 매우 그럴 듯한 근거들을 제시한다. 그럴 듯한 근거들, 이것이 바로 과학소설이 다른 장르와 변별되는 지점이다. 과학소설의 그럴 듯한 근거들은 실증과학 이론이거나 실제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의 논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유사과학 이론에 뿌리를 둔다. 필자는 이러한 특징을 ‘합리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자 한다.

과학소설에 시간여행, 우주여행, 외계인, 사이보그, 유전자 변형체 등 현재의 과학으로 실현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대상과 세계가 등장하는 경우에도 관련 과학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들이 작품 전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독자로 하여금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바로 이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과학소설과 환상문학이 변별되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과학소설은 비현실적인 가상의 세계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을 형상화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환상소설이나 판타지소설과 유사하지만 과학소설만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과 이론들을 작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다는 점이다. 나머지 장르들은 작품 속에 형상화한 세계나 사건들의 실현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데 비해 과학소설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와 추론을 전제로 작품 속의 환상이 언젠가는 현실에서 실현될 지도 모른다고 독자들을 설득시킨다. 이런 점에서 과학소설 속의 세계는 비현실적인 ‘환상’이지만 ‘합리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과학소설의 특징으로서 ‘합리성’을 언급한 사례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리히는 과학소설이 학문적으로 신뢰할 만한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하지는 않지만 허구적 개연성, 상상적 합리성에 근거한다고 지적한 바 있고¹⁵⁾ 복거일도 환상소설과 구별되는 과학소설의 특징을 ‘합리성의 추구’로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과학소설은 이상한 사건이나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작가의 노력이 뚜렷한 반면 환상소설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⁶⁾ 김성곤은 과학소설을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묘사한 소설’로 정의하면서 과학소설의 ‘합리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¹⁷⁾

과학소설은 이성과 논리를 시대정신으로 하는 근대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장르이다. 근대 이전에는 우연과 비현실성이 문학의 특징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근대로 접어들면서는 우연과 비현실은 더 이상 문학의 미덕으로 인정되지 않고 현실에 있음직한 개연성과 사실성만이 중시되기에 이른다. 근대 이후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들이 문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것은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근대정신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실증과학 너머 미지의 영역을 다루는 과학소설 또한 근대 과학기술 시대의 산물이다. 과학소설이 추구하는 환상이 논리와 설득력을 전제로 하여 실현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합리적 환상’이라는 점은 과학소설이 근대 과학기술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15) 라이머 예렘리히, 『SF연구와 그 문제점』, 『외국문학』26, 열음사, 1991, 47~48쪽.

16) 복거일, 『세계환상소설사전』, 서울:김영사, 2002, 25쪽.

17) 김성곤, 『SF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외국문학』26, 열음사, 1991, 28~30쪽.

3. 한국 과학소설의 ‘합리적 환상’의 세계

본 장에서는 『한국과학소설전집』(1975년) 수록된 작품들 중에서 오영민의 『화성호는 어디에』와 『마의 별 카리스토』를 분석하여 한국과학소설의 환상이 갖는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앞에서 과학소설의 환상이 문학의 다른 장르에 나타나는 환상과 구별되는 특징을 ‘합리성’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학소설은 미지의 공간과 대상을 다루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을 설정할 때도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 환상’으로 명명하였다.

본 장에서 살펴볼 오영민의 작품은 우주과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류의 생활영역이 우주로 확장되어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화성, 목성 등 은하계 내의 행성들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실현 불가능하지만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합리적 환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오영민의 두 작품을 분석하여 과학소설 속의 비현실적 세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제안한 ‘합리적 환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관심분야 형상화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확보

『화성호는 어디에』와 『마의 별 카리스토』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지구가 아닌 화성과 카리스토(목성의 위성)를 소설의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화성이나 카리스토는 실존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세계이다. 인류 그 누구도 직접 가보지 못해서 그 모습을 알 수 없기에 작품 속에서 아무리 구체적이고 그럴듯하게 형상화하더라도 그 세계는 비현실의 세계이다. 두 작품은 모두 작품 속의 세

계가 각각 화성과 카리스토라는 미지의 세계로 설정되어 있고 각 작품에는 외계 행성의 외계 생명체와의 만남이라는 공통의 사건이 등장한다. 이처럼 이들 작품에는 비현실인 세계와 창작 당시의 시점으로서는 불가능한 사건이 등장하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전제되어 있다. 분명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환상이지만 이들 작품이 실현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본장에서는 그 첫 번째 요인을 우주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유난했던 당대의 사회적인 상황과 관련지어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오영민의 작품들이 출판된 1975년은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이 전사회적에 걸쳐 급격하게 상승하던 시기이다. 1969년 아폴로 9호의 달 착륙 성공, 1971년 마리나 9호의 화성 표면 촬영 성공 등으로 인류의 달 진출과 화성 탐사는 가까운 미래에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¹⁸⁾ 이처럼 인류가 1970년을 전후하여 우주과학 분야에서 거둔 비약적인 성공으로 인해 우주 진출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 우주공간이라는 비현실의 세계와 외계생명체와의 조우라는 비현실적인 사건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오영민의 작품이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전제로 한 합리적 환상의 성격을 갖게 된 또 다른 요인은 당시의 국제정세라는 다소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된다. 1960년대 이래 우주개발은 미국과 소련의 대결의 장으로

18) 1972년 조경철 박사가 한 잡지에 기고한 글을 보면 당시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다. 글을 기고한 잡지가 과학전문 잡지가 아닌 일반 교양지라는 점에서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 우주개발을 위하여 벌써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의 불꽃 튀기는 경쟁은 벌써 월세계 인간착륙 월세계 유인무인(有人無人)차량착륙에 성공하였고 달 뿐만 아니라 금성 화성 세계의 탐색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화성은 우리들의 지구가 속하여 있는 태양계 중에서 가장 지구와 흡사한 성격을 지닌 천체로 알려지고 있다.” 조경철, 『10년 후의 우주시대』, 『새가정』 202, 1972.4.

서 우주개발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두고 양국은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우주개발은 냉전시대 이후 소련과 미국이 총성없는 대결이 벌이던 분야였던 것이다.¹⁹⁾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우주 개발 경쟁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미국과 소련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입장이었기에 미국 주도의 우주개발에 그 누구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남북 분단 이후 미국과 소련의 대결은 단순히 선진국의 국가 간 경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남북의 경쟁으로까지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우방국이었던 미국이 주력하던 우주항공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우리의 민족적 상황의 특수성과도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가장 객관적이고 순수한 영역이라고 평가받는 과학에 대한 관심마저도 힘의 논리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다소 씁쓸하기는 하지만 당시의 과학 정책, 특히 과학교육 정책에서 명백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²⁰⁾

사실 이상의 두 가지 이유는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오영민의 작품이 출판되었던 197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는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룬 우주과학이 정치적 힘의 논리에 따른 이유든 새로이 유행하는 과학에 대한 순수한 관심에 따른 이유든 당시의 가

19)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항공우주』 74~75, 2001에 수록된 「우주탐험의 역사」 (1)~(3) 참고.

20) 당시 과학소설을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은 ‘과학소설전집’에 실린 장관의 격려사에서도 나타난다. 과학소설조차도 조국근대화의 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조국 근대화라는 큰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리고 과학하는 마음은 청소년 시절부터 기르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과학소설 작가 협회가 있어 청소년들에게 과학하는 마음을 재미있게 일깨워주는 작품을 엮어 계속 출간한다고 하니 이것이 하나의 산 과학교재로서 널리 읽혀 우리나라의 과학목표 달성에 이바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1974년 12월),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 격려사」, 『한국과학소설(SF)전집』, 해동출판사, 1975.

장 대중적인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기존에는 과학에 무지했던 일반 독자들까지 우주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오영민의 과학소설에서 형상화된 비현실적인 세계와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당시의 실증과학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임에도 독자들에게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환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그러한 세계와 소재가 당시의 독자들에게 친숙했다는 데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2) 과학 이론 제시를 통한 설득력 확보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사건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장르로 판타지소설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판타지 소설에서는 실현불가능한 사건이 등장할 경우 사건에 그럴듯함을 부여하기 위한 별다른 설명 없이 사건 자체만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인간과 사악한 드래곤의 대결을 다루는 상황이 등장할 경우 가상의 생명체인 드래곤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부연설명은 제시되지 않는다.

반면에 과학소설에서는 실현불가능한 상황이 제시될 때 과학이론을 끌어 들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실현불가능한 비현실적 상황이 최대한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한다. 가령 달 기지를 건설하여 인류의 거주 영역을 확장한다든지, 유인 우주 탐사선을 타고 은하계의 다른 행성을 탐사하는 사건이 제시될 때 단순히 결과만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과학이론을 전제로 설명하여 설득력을 부여한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환상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런 상황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환상, 즉 ‘합리적 환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오영민의 『화성호는 어디에』와 『마의 별 카리스토』에서는 화성과 목성의 두 행성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지로서 달을 중요한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주 개척의 전초기지로 설정된 달에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달과 지구를 왕복하는 정기선이 존재하며 세대를 이어 달에 정착하

면서 지구가 아닌 달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창작 당시 인류가 달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달 개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은 독자들에게는 머지않은 실현가능할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작품에서는 달기지의 존재를 최대한 실현가능해 보이도록 작품 속에서 다양한 과학의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구와 달을 운행하는 운송수단인 로케트의 이륙과 착륙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실제 로케트 착륙의 과정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고 이착륙의 핵심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중력-인력에 관한 이론도 장황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로케트나 우주선 이착륙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이론들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① 로케트는 아직 조그맣게 보이는 달을 향하여 힘차게 다가가고 있다. ... 스피이드계를 보니까 속력은 시속 1천킬로로 되어 있다. 지구와 달의 인력의 경계까지 와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로케트는 일단 거의 공중에서 스톱될만큼 속력이 없어지는데, 지구의 인력권에서 달의 인력권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시 스피이드는 오른다. 이번에는 달의 인력에 끌리는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스피이드는 무섭게 빨라져 마침내는 달의 표면에 유성처럼 충돌하고 만다. 달의 표면에서 3백킬로 가량의 거리에 왔을 때, 로케트의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보조 로케트 분사장치가 별안간 불을 뿜었다. 그 바람에 로케트는 획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꾀무니가 달의 표면을 향했을 때, 이번에는 반대편의 보조 로케트가 불을 뿜었다. 이로써 로케트는 완전히 꾀무니를 달에 향한 채 내리기 시작했다. 로케트는 굉장한 스피이드로 낙하한다. 참 위험하다. 그리하여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로케트 분사가 또 시작되었다. 달의 인력을 거역하고 브레이크를 걸며 내려가는 것이다.(29-30)

② 얼마만큼의 스피이드가 있으면 지구의 궤도를 벗어날 수 있을까? 태양은 태양계의 두목이다. 때문에 그 인력도 지구보다는 훨씬 세다. 때

문에 지구를 빠져나올 때의 약 4배의 힘이 필요하다. 즉 1초간에 41킬로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굉장한 스피이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고 스피이드가 초속 30킬로의 무서운 스피이드임을 생각하면 된다. 즉 지구상의 우리들은 지구호라는 굉장히 큰 로켓에 타고 초속 30킬로, 시속 10만 8천킬로의 큰 스피이드로 날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41킬로-30킬로=11킬로가 된다. 그런데 우리들의 화성호는 달의 인력에서 벗어나는데 초속 3킬로, 지구의 인력에서 도망치기 위하여 6킬로, 합해서 초속 9킬로 가량의 스피이드를 이미 내고 있다. 그렇다면 11킬로-9킬로=2킬로, 불과 2킬로만 있으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75-77)

오영민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실현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시한 과학의 구체적인 이론과 원리를 모두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소 긴 부분을 인용했다. 인용문 ①은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는 과정을 제시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달 착륙 순서나 방법은 실제 우주과학 분야에서 설명하고 있는 달 착륙선의 하강 순서와 방법과 거의 일치한다.²¹⁾ ②는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속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이 제시된 부분이다. 여기서 제시한 수치들도 당시에 실제 우주과학 분야에서 입증한 수치와 거의 일치한다.²²⁾ 당시

21) 달에 착륙하는 과정은 크게 궤도이탈 하강단계, 동력 하강단계의 두 단계로 나누고 동력하강단계는 다시 제동단계, 접근단계, 최종착륙단계의 3가지 세부단계로 나눈다. ... 궤도이탈하강단계는 ... 동력하강단계를 수행하기 직전까지 달근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고, 제동단계는 궤도이탈 하강단계에서 벗어나 속도와 고도를 줄이는 과정, 접근단계는 달착륙선의 자세를 지면과 수직으로 맞추어 사람이나 영상센서가 착륙할 지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며, 최종 착륙단계는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낮고 일정한 속도로 수직방향의 착륙을 하는 단계이다. 조성진, 세부단계를 고려한 달착륙선의 하강과 상승단계의 최적궤적 생성, 부산대학교 석사, 2011, 3~4.

22) 지구상에서 우주공간으로 중력을 이겨 나가려면 11.18km/sec의 탈출속도가 필요하고 달 표면에서 탈출하려면 2.374km/sec의 탈출속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구와 달 사이에서 비행하는 물체가 초속 2.374km/sec와 11.18km/sec 사이를 갖인

는 우주 개발 분야가 워낙 인기가 있는 소재였으므로 과학 잡지 등에서 관련 이론이 다수 소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영민은 작품 창작시 관련 이론을 참고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오영민은 과학소설의 교육적 가치를 중시하던 'SF작가클럽'의 회원이었기에²³⁾ 실증적인 자료를 작품 창작에 활용했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상에서 오영민의 과학소설이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전제로 한 합리적 환상의 특징을 갖게 되는 이유를 오영민이 작품 속에서 제시한 실증 과학의 이론들에서 찾아보았다. 그런데 과학소설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론은 아니지만 설득력 있는 추론을 제시하거나 실존하지는 않지만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물이나 생명체 등을 제시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실제로 오영민의 작품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사물이나 생명체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 원리까지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작품 속에 제시된 과학의 원리가 실제 과학에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그럴 듯 해 보이지만 가짜 과학인 경우도 있다. 바로 '유사과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품에 설득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아니, 산소는 공기 중에는 없지만 땅속에 틀림없이 있을 거야. 화성의 공기는 얇으니까 태양광선의 화학작용으로 자꾸 오존이 되고 마는

다면 지구에 대해서는 타원궤도 속도를, 달에 대해서는 변곡선궤도속도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달 공전속도가 1,082km/sec이기 때문에 달까지의 궤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위상규, 『인간의 달 착륙은 반세기내에 가능』, 『과학과 기술』 2(1), 1969, 44~49, 46쪽.

- 23) SF작가클럽 회원들이 편찬한 『한국과학소설전집』(1975)은 과학월간지 『학생과학』을 통해 활동하던 작가들의 작품을 묶은 것이며, 전집에 수록된 당시 과학기술처 장관의 격려사에는 “이것(한국과학소설전집)이 하나의 산 과학교재로서 널리 읽혀 우리나라의 과학목표 달성에 이바지되어 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오영민은 SF작가클럽의 회원으로서의 사명감에 따라 작품 창작에 검증된 실증과학의 이론들을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거야. 오존은 땅속의 철과 결합하여 모두 붉게 녹슬고 만 거야. 화성의 사막이 저렇게 붉은 것도 그 때문임이 틀림없어. 그러므로 화성의 식물은 공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서 산소를 취하게 되어 있을 거야. 식물에게 필요한 탄산가스(이산화탄소)는 지구의 두 배나 있고 일광도 물도 있으니 그것만 있으면 식물은 반드시 자랄 수가 있어.”(114-115)

④ “이것이 화성의 운하의 정체야. 화성의 운하는 옛날, 로우웰이 생각한 인공의 운하도 아니고 또 골짜기나 강의 흔적도 아니고 이 식물이었어.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원은 두께가 겨우 3.4센티였어. 그것으로는 전부 녹는다 해도 그 물이 화성의 운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야. ... 그런데 이 식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아무리 적은 물이라도 뿌리로 흡수하여 그 관 속에 흘리는 거야. 식물은 하나하나 펌프와 같이 물을 미치는 활동을 하게 되어있단 말이다. 이렇게 북극에서 남극까지 몇 천킬로의 사이를 몇 억, 몇 십억이라는 이 식물이 바둑판처럼 곧바른 통로를 만들어 물을 나르고 있는 것이야. 자연의 힘은 이와 같이 실로 위대한 거야. 이 식물은 몇 십만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조금밖에 안 되는 수분을 이렇게 해서 화성 안의 온 식물에 이르도록 특별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163-166)

인용된 부분 ③은 산소가 없는 화성에서 식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한 부분이다. ④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화성의 운하에 대한 부분이다. 양자는 모두 실증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그 논리적인 근거도 부족한 내용들이지만, 매우 그럴듯하게 설명되고 있다. 소설이 출판된 1975년에 화성에 대해 알려진 것은 1971년 마리나 9호에서 보내온 화성 표면 사진이 전부였지만, 오영민은 나름대로 화성의 식물과 화성의 운하의 존재 원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소설에 등장하는 이러한 가공의 기술과 이론을 ‘유사과학’이라고 하는데, 이들 ‘유사과학’은 과학을 위장한 지식으로 진짜 과학에서는 인정되지 않거나 비주류로 취급되는 것들이지만 과학소설의 환상성을 좀 더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²⁴⁾

3) 묘사를 통한 사실성 확보

오영민의 과학소설에는 ‘묘사’가 빈번하게 등장하여 비현실의 상황에 그럴듯함을 부여하고 있다. 묘사는 ‘사물과 인물을 재현시키는’ 서술방식으로서²⁵⁾ 인물이나 사건을 작가가 직접 독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소설의 리얼리티를 최고조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²⁶⁾

오영민은 『화성호는 어디에』와 『마의 별 카리스토』에서 작품의 주요 공간적 배경인 달, 화성, 목성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실감을 높여 준다. 책이 출판되었던 1975년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인류가 가보지 못한 이들 행성에 대한 실감나는 묘사는 우주 탐험이라는 실현불가능한 사건에 실현가능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다음의 인용들을 통해 과학소설의 환상성이 그럴 듯한 ‘합리성’을 갖게 하는데 ‘묘사’가 중요한 서술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화성은 만월의 10배 가량의 크기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렇게 유쾌한 모습은 아니다. 달이나 지구와는 달라서 색이 벽돌과 같이 붉다. 어떤 곳은 짙은 붉은 색이고 어떤 곳은 옅은 오렌지색이다. 드문드문 괴상한 모습의 검은 반점이 번져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 반점 사이에 가늘고 또 굵은 몇 십개의 줄이 세로 가로 그물과 같이 얹혀 있다. 그것은 유명한 화성의 운하인 것이다. (『화성호는 어디에』, 107)

⑥ 얼마 지나니까 또 다시 화성은 새벽이 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멋진 전망이다. 모두들 창에 달라붙어 화성의 동트는 새벽 경치를 정신없이 바라보았다. 그것은 실로 지구와 꼭 같은 아름다움이 아닌가. 하늘은 푸르게 빛나고 하얀 구름이 숨처럼 등실등실 떠 있다. 그리고 눈 아래는 끝없는 대 사막이 펼쳐져 있다. 그 위를 아침 해가 햇살을 던지니 아름답고 붉게 반사하여 그 색채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아

24) 크로노스케이프, 『SF 사전』, 김훈 역, 서울:비즈앤비즈, 2012, p.212.

25) 한용환, 앞의 글, 148쪽.

26) 정한숙, 『소설기술론』, 서울:고려대학교출판부, 1979, 27쪽.

름다운 정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 공기가 광선을 흠으르뜨리므로 이렇게 밝고 깨끗한 색이 이루어진다.([화성호는 어디에], 129)

⑦ 카리스토는 매우 거치른 세계 같다. 달나라의 시꺼먼 용암지대와 같은 곳과 울퉁 솟아난 산악지대와 같은 곳 사이에 한군데만 넓은 갈색의 평지가 보인다. 그렇지만 아주 싸늘한 죽음의 구체라는 것은 이내 알 수 있다.(72-73) 멀고 창백한 태양빛이 카리스토의 험상스럽고 거치른 풍경을 비치고 있으며 100만 마일 가량의 저쪽에는 대목성이 마치 태양과도 같이 빛나며 떠 있다. 목성에 가까운 이오와 유우로파의 두 위성은 회색 빛깔의 둥그러미로 되어 떠 있고 그 외의 위성은 모두 별처럼 빛나고 있다.(75-76) 7,8개의 대분화구가 연이어 보인다. 얼마 뒤 정찰호는 카리스토의 그늘 속으로 들어갔다. 아래는 밤이다. 아주 캄캄하다. 다만 약간 희미하게 목성의 반사광원이 바위를 비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유령과도 같이 청백하고 기분이 나쁘다...목성의 제3위성 가니메디가 나타났다. 그것은 초생달과 같은 모양이다. 그리고 정찰호는 다시 낮의 반구로 나왔다. 먼 태양의 빛을 받은 죽음의 평원이 바로 밑에 펼쳐졌다. 그리고 드디어 처음의 갈색의 평지 위에 되돌아 왔다.(76-77) 두 지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카리스토는 정말 이상한 곳이었다. 여기서는 태양은 아득히 먼 곳에 낮게 뜨고 청백한 빛깔로 조그맣게 움츠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밤의 어둠에 싸일 염려는 없다. 카리스토의 낮은 지구보다 40배나 길기 때문이다. 북쪽에 산이 솟고, 서쪽에 대분화구가 즐비하다. 바람은 조금도 없고 따라서 인체에 해로운 대기는 느낄 수가 없다. 한 가닥의 식물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새카만 하늘에서 목성이 내려다 보고 있을 뿐이다. 카리스토에서 보는 목성은 100마일 저쪽에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번쩍번쩍 빛나는 구체다.(78-79)

인용문 ⑤와 ⑥은 화성을 묘사한 부분이다. 화성탐사는 1964년 매리너 4호로 시작되어 1971년 무인탐사선 마리나 9호가 화성표면 사진 촬영에 성공하였고 그로부터 화성의 지형도 작성이 시작되었다. 『한국과학소설전집』이 1975년에 출판되었으니, 그때까지 실제로 화성에 대해 알려진 것은 무인탐사선이 보내온 화성표면 사진이 전부였지만, 오영민은 작품

속에서 화성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함으로써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⑦에서 묘사하고 있는 카리스토는 일찍이 갈릴레이가 천체망원경을 통해 관측한 목성의 위성 4개 중 하나이다. 1975년 이전까지 목성에 대해 알려진 것은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관측결과와 1972년과 1973년 파이오니어(Pioneer) 10호와 11호에서 보내온 사진자료들이 전부이다. 1972년 파이오니어 10호가 목성의 북극 상공을 지나는데 성공하여 목성과 그 위성의 사진을 보내오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목성을 볼 수 있었다. 오영민이 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에 카리스토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극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⑦에 묘사된 카리스토의 풍경은 매우 구체적이다. 작가는 지극히 단편적인 정보에 기반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창조한 미지의 공간인 화성과 목성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환상이지만 매우 그럴 듯하게 인식되도록 한 것이다.

공간적 배경 뿐 아니라 인물을 제시하는 부분에도 묘사가 활용된다.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은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화성호는 어디에』와 『마의 별 카리스토』에는 모두 미지의 생명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외계생명체의 외양이나 특징이 무척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실감나게 묘사함으로써 이들은 신비롭고 환상적인 존재에서 사실적인 존재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물론 독자들은 이들 외계생명체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묘사를 통해 자세하게 그려내어 그럴 듯한 환상, 즉 ‘합리적 환상성’을 형성한 것이다.

⑧ 여기의 식물은 아직까지의 식물과는 전혀 다른 것 같다. 두꺼운 이파리는 길이 30센티나 되고 그 아래에 붙어 있는 열매같은 것이 카베츠만큼이나 크다. 그리고 색깔이 아주 진녹색이며 검으텃텃하다. 아까 멀리서 보았을 때 검게 보인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진귀한 것은 열매 아래 나와 있는 길이 50센티 가량의 뿌리같은 회색의 관이다. 그 관은 하나의 열매에서 두 개씩 나와 서로 카베츠 열매에 연결되어 있다.

(화성호는 어디에, 163)

⑨ 화성인의 얼굴에는 코가 없다. 이마 원숭이와 같이 뒤로 움푹하고 사람의 3배가량이나 큰 눈 두 개가 커다란 머리 양쪽에 붙어 헤드라이트처럼 빛나고 있다. 그리고 입은 크고 길다. 아마 이 큰 입이 코의 구실도 겸하고 있는 모양이다. 화성인의 전신은 화성의 식물 비슷한 비늘로 덮여 있고, 그 위에 가늘고 긴 은빛 털이 부드럽게 돋아나 있다. 이것이 아마 망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 모양이다. 그리고 큰 가슴은 미끈하게 내려오다가 허리 부분에서 잘썩해지고 가느다란 발 끝에는 개구리 같은 물갈퀴가 붙어 있다. 그것은 아마 물을 갈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걸어 다니기에 편리하게 된 것일 것이다. 손은 긴 편으로 원숭이보다 더 길어 서 있을 때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다. (『화성호는 어디에』, 196-197)

⑩ 언제 나타났는지 소리도 없이 뒤 쪽 50미터 지점에 높이 1미터 남짓한 회색 덩어리가 마치 큰 병풍과도 같이 우뚝 서서 약간씩 좌우로 흔들리고 있다. 마치 독사가 머리를 흔들거리는 것과 같이 기분 나쁘다. 더구나 그것들은 지구인 일행이 도망칠 단 하나의 길마저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당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다음 순간, 회색 덩어리 속에서 하나의 가느다란 줄기가 몽글몽글 뱀 대가리처럼 공중으로 뻗더니 이윽고 그것은 스르르 소리를 내며 네 사람의 눈앞 10미터 지점까지 뻗더니 지면에 납작 붙었다. (『마의 별 카리스토』, 96-97)

인용 ⑧에는 화성의 운하로 알려졌던 곳에서 발견한 화성의 식물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고, ⑩은 목성의 위성인 카리스토에 존재하는 위협적인 식물에 대한 묘사이다. 물론 두 식물은 모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식물이지만, 생김새가 무척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사실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실존하지 않는 것(환상)조차도 ‘묘사’를 통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과학소설의 ‘합리적 환상성’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⑨는 화성인의 생김새에 대한 묘사가 제시되고 있는데 식물에 대한 묘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구체적이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는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면서 과학소설의 ‘합리적 환상성’이라는 특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은 행성에 대한 치밀한 묘사라든가 실존하지 않는 외계생명체에 대한 실감나는 묘사는 설득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4. 결론

본고는 한국과학소설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시고로서 1975년 해동출판사에서 출판된 『한국과학소설전집』의 수록 작품 중에서 오영민의 「화성호는 어디에」와 「마의 별 카리스토」를 대상 텍스트로 삼고 있다. 오영민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비현실적이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과학소설의 특징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텍스트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오영민의 두 소설은 과학소설 중에서도 우주 활극이라는 하위 장르에 속한다. 우주활극은 과학 지식의 토대 하에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이 결합되어 창조된 우주의 한 공간에서 인간과 외계종족이 조우하여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로서 비현실과 초자연, 논리와 설득력의 요소를 두루 갖춘 장르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과학소설이 창조해 낸 가상의 세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용어를 찾기 위해 ‘상상’, ‘공상’ 그리고 ‘환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상’은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원동력으로서 작가의 창조 행위를 일컫는 보편적인 용어이다. ‘공상’은 과학소설의 작가나 독자가 창작과 독서의 과정에서 진행하는 정신행위와 관련되는 용어로서 ‘허무맹랑하고 허황한’의 의미를 전제한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과학소설의 수식어였음에도 과학소설을 가치 폄하하는 수식어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허무맹랑하고 허황한’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에 오류가 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상’을 다시 과학소설을 수식하는 용어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고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과학소설의 ‘비현실적이지만 실현가능성 있는’ 성격을 의미하는 용어로서는 ‘공상’보다는 ‘환상’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공상’은 창작 및 독서 과정에 수반되는 정신 ‘행위’에 대한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비현실적이지만 실현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환상’은 과학소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 장르의 특징이기 때문에 과학소설의 ‘환상’만이 갖는 변별점을 추출해내고자 시도했고 그 결과 과학소설이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문학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합리적 환상성’으로 명명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 과학소설의 ‘합리적 환상성’이 실제 작품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오영민의 『화성호는 어디에』와 『마의 별 카리스토』를 분석하였다. 우선 당대 사회의 현실과 사회적 소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환상을 설정한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작품의 주요 사건은 공통적으로 은하계 탐사를 비롯한 우주 개발인데 당시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전사회적으로 뜨거웠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독자들이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오영민은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사건을 제시할 때도 과학의 법칙과 이론들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때 실증과학이론 뿐만 아니라 유사과학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들 과학이론들은 사실성의 여부를 떠나 작품의 그럴듯함, 즉 합리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오영민은 작품에서 서사기법으로 ‘묘사’를 사용함으로써 가상의 공간이나 상황, 인물에 대해 사실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미지의 행성과 실존하지 않는 외계생명체에 대한 생생하고 치밀한 묘사는 설득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학소설은 허황하고 유치한 이야기를 그럴 듯하게 꾸며내어 독자들

을 현혹시키며 현실의 모순과 한계를 담아내기보다는 저급한 재미만을 추구하는 장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과학소설이 꾸며내는 허황한 이야기와 그를 통해 전해지는 재미 역시 문학의 중대한 본질이다.

본고에서 제안한 과학소설의 ‘비현실적면서도 실현가능성 있는’ 성격, 즉 ‘합리적 환상성’에 대해 분석이 과학소설에 대한 편견없는 이해와 평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오영민, 『화성호는 어디에』, 서울:해동출판사, 1975.
- 오영민, 『마의 별 카리스트』, 서울:해동출판사, 1975.
- 고장원, 『세계과학소설사』, 서울:채륜, 2008.
- _____, 『SF의 법칙』, 서울:살림, 2008.
- 김동효, 「선진국의 우주개발 개황」, 『과학과 기술』4(1), 1971, 19~25쪽.
- 김성곤, 「SF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외국문학』49, 열음사, 1996, 28~43쪽.
- 김영권, 「우주시대와 우주과학」, 『기독교사상』14(6), 1970, 50~55쪽.
- 김지영, 「1960-70년대 청소년 과학소설 장르연구」, 『동남어문논집』제35집, 동남어문학회, 2013, 125~149쪽.
- _____, 「한국과학소설의 장르소설적 특징에 대한 연구」, 『인문논총』제32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376~397쪽.
- 김창식, 「서양 과학소설의 국내 수용 과정에 대하여」,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서울:국학자료원, 2000.
- 대중문학연구회 편,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서울:국학자료원, 2000.
- 로버트 스콜즈&에릭 라프킨, 『SF의 이해』, 김정수·박오복 역, 서울:평민사, 1993.
- 로즈메리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서울:문학동네, 2001.
- 박상준, 『멋진 신세계』, 서울:현대정보문화사, 1992.
- 박진, 「장르들과 접속하는 문학의 스펙트럼」, 『창작과비평』,36(2). 2008, 31~48쪽.
- 북거일, 『세계환상소설사전』, 서울:김영사, 2002.
- 아이작 아시모프, 『과학소설 창작백과』, 김선형 역, 서울:오멜라스, 2008.

- 위상규, 「우주과학-인간의 달착륙은 반년내에 가능」, 『과학과 기술』2(1), 1969, 44~49쪽.
- 라이어 예햄리히, 「SF연구와 그 문제점」, 『외국문학』26, 열음사, 1991, 41~60쪽.
-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민음사, 1997.
- 임종기, 『SF부족들의 새로운 문학 혁명, SF의 탄생과 비상』, 서울:책세상, 2004.
- 전용갑, 「환상성 개념의 사회적역사적 조건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제24집, 2008, 329~360쪽.
- 정한숙, 『소설기술론』, 서울:고려대학교출판부, 1979.
- 조경철, 「10년 후의 우주시대」, 『새가정』202, 1972, 31~35쪽.
- 조성면, 『대중문학과 정전에 대한 반역』, 서울:소명출판, 2003.
- 조성진, 『세부단계를 고려한 달착륙선의 하강과 상승단계의 최적궤적생성』, 부산대학교 석사, 2011.
- 최기숙, 『환상』,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 최성민, 「장르문학의 현실과 지평」, 『구보학보』, 6. 2011, 251~269쪽.
- 츠베탕 토도로프, 『환상문학 서설』, 이기우 역, 서울:한국문화사, 1996.
- 캐스린 흄, 『환상과 미메시스』, 한창엽 역, 서울:푸른나무, 2000.
- 크로노스케이프, 『SF 사전』, 김훈 역, 서울:비즈앤비즈, 2012.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우주탐험의 역사」(1)~(3), 『항공우주』74~76, 2001.
- 한용환, 『소설학 사전』, 서울:문예출판사, 1999.
- 「특집논문-SF문학, SF문화」(1996), 『외국문학』 49호.
- E.B. 린다만, 「우주과학과 미래의 인간생활」, 『기독교사상』13(5), 1969, 70~76쪽.

<Abstract>

A Study on The Fantasy of Korean Science Fiction

Kim, Ji-yeong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unrealistic features of science fiction. Unlike the realist novel, science fiction creates an unrealistic world, not reflecting the reality.

But the unrealistic world of science fiction lets the readers have expectation about the feasibility.

In the second chapter, it is decided that the feasibility of the unreality of science fiction is called a “rational fantasy”.

In Chapter 3, to explore the features of “rational fantasy”, Oh Young-min’s science novels, *Where is the Mars* and *Callisto, Star of the devil* were analyzed. *Where is the Mars* and *Callisto, Star of the devil* belong to space opera among science fiction, in particular. Being adventure stories on exploring Mars and Jupiter, the two novels are a fantasy, not reality concerning their backgrounds or events.

But the two works have shown that the feasibility could be made. The first reason is that, in the 1970s, even common readers found the background and the event in the novels familiar on account of their own high interest in space exploration. The second reason is that the novels make themselves sound more convincing by introducing the scientific theory. The third reason is that the novels increase the

reality with the description, when presenting a background or character. Because of the three reasons listed earlier, the science fiction of Oh Young-min can be determined to have a “rational fantasy.”

It is interesting to read science fiction because of the illusion. But people have criticized that interest-seeking novels have a lower level than other ones. But illusion has long been the essence of literature.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on the fantasy of science fiction in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eliminating the bias against science fiction.

Key Words : Science Fiction, Space opera, The Complete Series of Korea Science Fiction, Oh Young-min, Imagination, Illusion, Fantasy

■ 논문접수 : 2015년 3월 20일

■ 심사완료 : 2015년 4월 14일

■ 게재확정 : 2015년 4월 20일